

哲學과 人生

韓稚振

一

現代 多數人의 마음 속에는 哲學이란 學問에 對하여 거의 先天的으로 그릇된 偏見과 先入見을 抱負하고 있다. 그러한 態度를 갖게 된 가장 큰 理由는 哲學이란 學이 다른 各種의 學들 보다 그 範圍가 매우 浩大하고 그러니까 그 本職의 正義를 分明히 定界하여 捕捉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여간한 統括的 理性의 發達이 안이고는 理解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하기 때문에 當場의 感覺的 現實을 무엇보다 第一義的으로 重要視하는 普通人에게는 哲學이 넘우 超現實的하게 表示 되어진 것이다.

이 哲學에 對한 冷待는 勿論 以上과 갖치 哲學 自體의 理想이 高遠하고도 抱括的 한데도 基因하였거지만은 在來 哲學者들의 亂的 詭辯의 傾向의 탓이라고도 안이 할 수 없다. 이리하여 混亂過密의 辨說에 가리운 哲學이 普通凡人에게 나타날 때에 分明히 그 正體가 暴露되지 안이 할 것은 事實이겠다. 그럼으로 그들에게 哲學은 一種 閑人의 閑事거리 消日 거리로 看做하지 안이 하면 안이 되었다. 그들은 말한다. 哲學은 밋창 업는 향아리와 갖다. 암만 研究하노라 하고 討論하노라 하고 하지만은 잠겨 남겨 잇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다 空論뿐이다. 여긔서 밥과 썩이 되어 나아오지 못 할 것이다. 그럼으로 形而上學을 注意하라! Beware of meta[p]hysics!

名釋이 놓흔 詩人 킷쓰 [키이즈] 도 哲學에 對하여 非難한 바가 있다. 그이는 哲學은 無人情的이라 하였다. 그이는 말했다. 「사람의 靈은 어름과 갖치 寒却한 哲學에 接하여 別썩듯한 活氣慰安을 엇지 못한다.」

上古 希臘에 諷刺 詩人으로 有名하든 아리스토텔레스[아리스토텔레스]은 當時의 元祖的 人生 哲學家이 잇는 쏘크라테스의 生涯를 회통하는데 全力하여 名譽를 엇었다한다. 以外 近代에 잇서서도 文人 中 톨스토이 · 타고 등은 顯著한 例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哲學 賤視者들은 혼이 말한다. 哲人은 根本부터 實行치 못할 意見을 가지고는 一方으로 마음은 雲空에 썩서 놓고 그리고 足은 地上에 蹴

터 단닌다. 이것이 哲學者의 二重 生活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이야기 하나 안이 할 수 업다. 以前 希臘哲學의 開祖로 치는 테일리쓰 [탈레스] 가 하로는 蒼空의 閃光한 星群을 瞻望하면서 步行하다가 失足하여 井中에 빠진 일이 잇다 한다. 그 瞬間에 지나가든 엇던 行人이 보고 비웃기를 「이 遊夢病者야-그대가 當場의 足 前에 有事함을 能히 보지 못하면서 天上에서 되어 가는 일은 能히 알상 십흔가? 먼저 足 前의 事부터 理解할지라」라고 勸告했다 한다. 이 이야기는 그새에 잇서서 哲學者 非難者의 習魚가 되엇더라한다. 우리도 過去의 만흔 哲人 中에 以上 테일리쓰의 後 跡을 그대로 踏한 이가 棼 不少하지 아니한 것을 只今 잘 알고 잇다. 즉 그이와 가티世人들에게 精神 빠진 일 가튼 것을 만히 했다는 것이다.

다시 좀 더 생각 잇게 過去의 歷史를 回顧한대도 우리에게 直面한 印象을 남겨두는 것은 哲人이 過去의 長久한 時日을 費하면서 不堪의 自己 觀察과 忍耐的 思索을 한다 하고서도 來終엔 世界思想界의 發展에도 아모 永久的한 貢獻을 與하였거나, 쏘는 具體的으로 무슨 思想의 進步를 促進케 했거나 한 形跡이 업고, 그저 失敗로만 歸하였다하는 感이 不無하여 보인다. 이에 反하여 科學者, 發明家, 政治家 나는 적어 도모다 그들의 뒤에는 明確한 흔적則 結果를 遺置하여 人生 生活에 豊富繁榮을 加作 하였지만은 哲學者는 袞 穉의 말과 갖치 맞치 하늘에 捧供한 處女貌樣으로 아모런 實果도 結치 못하였고 單只 人生의 一種 疇形的, 無用的, 產物에 不過하다 하게되였다.

以上과 갖흔 哲學에 對한 非難은 一層을 나가 哲學者 自體에서도 發하게 되였다. 이위 모든 誹謗을 全部 事實이라고 認定할 수 업다는 이들 中에서도 哲學的 思考가 아조 乾燥無味한 空論으로 退化나 되지 안이 할가 하는 念慮는 姑舍하고 그만 落望한 이도 업지 안었다. 이럼으로 哲學을 熱心으로 研究 잘하다가 不得의 學이라고 拋棄한 이가 그 얼마나 만흔지 아는가. 思惟컨대 獨逸의 哲人로서 보다 더 哲學者의 職務를 高尚한 理想으로 알고 努力한 이는 稀有할 듯하다. 그러나 그는 哲學的 患者에 關하여 寒嘆하되 「刀를 밤낮 그저 銳利하게 가라만 두는 疲困을 가지고 必要는 무엇 잇느냐 그 刀로써 刈할 實物이 업는 데야-」라 하였다 한다. 이것은 哲學 研究는 다 헛功에서 지나지 안이 한다는 自白이다. 그러면 哲學은 그러케 쓸데 업는 것이며, 우리人生과도 아모 關係가 업는 것일가? 이 質問의 對答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아래 얼마간 더 쓰기로 한다.

二

哲學은 實로 意味深長한 學問이다. 사람의 特權的 產物이다. 누구나 가질 수 잇는 學問이다. 哲學의 始作이 되는 懷疑的 態度, 好奇心-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 懷疑心의 延長, 무엇을 終點까지 차자 보려는 心志, 그리고 찾는 대로 組織하고 意味있게 하는 作用-이것이 哲學作用 즉 形而上學의 思考運動이다.

우리는 흔히 「살고저 하는 意志」의 말을 듣는다. 이 살고저 하는 意志力은 무엇을 바라고 압력으로 나아가는 活動이니 그 압력으로 나아가는 活動相態는 意識的이던 無意的이든 如何間에 疑訝的 好奇的 하게 보인다. 왜 살고저 하는 生命力은 작고 나아 같냐 할가? 나아가면 무엇하나- 生命力은 이러케 對答하리라. 「나아가면 이 보다 좀 나흔 것, 적어도 이보다 좀 다른 무엇이 있슬가 보아서 우리는 대고 나아 같난다.」고. 事實이다. 實로 生命은 여기서 哲學的인 것을 우리에게 알니어 준다 새것을 차즈려 한다- 그러면 어데서 그「새것」을 차즈려 하는가? 다른데서가 안이다 다만「自我」에서 차즐 수 있고 찾는 것이다. 이럼으로 사람마다 天痴는 내노코 다 哲學者가 될 수 있는 것이다. 哲學은 以上과 갓흔 意義에 잇서 生命의 根本이다.

우리는 겨기서 哲學은 人生 널니 잡아 生命을 썬나서는 存在치 안이한 것을 어름퓏이나마 알 수 있다. 우리가 이 眞理를 조금이라도 肯定하고 본즉 以上の 모든 哲學의 對한 非難은 單只 皮相的 觀察에서 된 偏見이라 안이 할수업다. 그러나 그 싸위 非難을 하는 것부터 一種 哲學的이라 안이 할수업다. 非難 嘲笑도 새것 무엇을 憧憬하는 속에서 發한 것이다. 이런 故로 우리 一般에게 큰 問題되는 것은 哲學이 있고 업는 것이 問題가 안이라 우리의 哲學이 조코 낫븐 것이 一大問題이다.

사람에게 가장 親密하게 되어 잇는 것은 내의 身體일 것이다. 그러나 이 肉身은 世上萬物 中の 하나 小體인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은 나의 周圍에 둘러 잇는 千萬個 物體 어느 것 보다도 나는 나의 肉塊가 가장 親密할 썬안이라, 나의 모든 活動의 極重要한 器具인 것을 잘 안다. 이럼으로 나는 무엇 보다 이내 몸의 位置와 品質을 먼저 알아야 할 必要가 生起한다. 하지만 엇더케 내가 가지고 잇는 이 身體에서 身體의 位置며, 貌樣品質을 알 수 잇슬가 맞치 房內에 잇는 내가 房外面을 觀察할 수 잇슬가? 우리는 여기서 可能的 哲學과 現實的 哲學의 二種을 찾게 된다. 즉 室內에 잇는 것은 可能的 哲學이요, 室外에 나아온 것은 現實的 哲學이다. 다른 말로 박구면 前者는 本能的(動物的)哲學이요. 後者는 理性的(人間的)哲學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 所謂 本能的 哲學은 우리가 普通 말하는 哲學이 안이요. 理性的 哲學만이 世上 사람들이 名稱하는 참 哲學이라해도 無妨하겠다. 哲學은 이럼으로써 理性的 反照的 作用의 產物이다. 내가 나를 觀照함에서 나를 아는 것이다. 아까 例에 依하여 비록 내가 室內에 잇지 만은 室外을 能히 觀照할 수 있고 혹은

室外에서 室內을 反想하는 것이 理性的의 作用이다. 理性은 이리케 超越 作用의 性質이다.

理性的의 見地는 그 反照 對相物에 따라서 便利上 搬移되 는것은 當然하다. 室外을 考察할나 할時에는 普通 생각하기 는室外에 그 觀察의 立地가 될 듯 심흐나 그리치 안코 室內에 혹은 旣곳에 그 見地를 두는 것이 理性的의 特性이다. 왜 그리냐 하면 理性은 反射的 作用으로써야만 그 職能을 可行하는 旣문이다. 내가 나를 아를나면 나를 超越하여야 하는 새음이다.

이 理性的 法則에 依하여 個人的으로는 自我보다 自我의 環境을 먼저 알나 하고 人類的으로는 人類 自體보다 外界 自然을 먼저 探求하기에 始作한다. 이럼으로 哲學史를 보면 人生觀보다 宇宙觀이 먼저 出發된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自我를 永久히 超越할 것도 안이요. 人類를 無觀한 것은 안이다. 차라리 나를 알기 爲하여 人類를 알기 爲하여 便利上 즉 觀察上 臨時로 超越한 것이다. 實로 내가 나를 超越하는 것은 나의 擴張인 것이다. 나의 解放이다. 哲學은 나로 하여금 自由의 天地로 引導한다. 나는 이제에 普遍的 我이다. 차라리 나는 個體的 普遍 實在다.

三

우리는 좀 仔細히 以上の 眞理를 闡明하겠다. 그럼으로 우리는 다시 人皆有之한 哲學性-疑訝의 傾向-의 發表形式을 論及하려한다.

哲學은 上設과 如히 本來 그 淵源을 篤量에 두고 거긔서 發生하였다. 사람이 이 世上에서 生活하는 中에 平常을 旣난 엇던 生活 情勢가 突起할 時에 사람은 그 變□의 性質 이미 起源을 探知할 나는 疑訝가 生起한다. 따라서 그 原因의 如何를 求하며 辨證을 試한다 이것이 哲學의 出發의 始作이다. 이럼으로 哲學은 大體로 말하면 生活의 批判이다. 이 批判은 그 批判者의 性格과 批判的 程度에 依하여 各種各樣인 것은 疑心이 엇다. 野蠻未開한 사람의 神話的 形式으로부터 現代 文明人의 合理的 組織的 形式의 科學的 哲學이 엇다. 그러나 天變地異에 대한 說明, 斷片的 神話이든지 統一的 哲學이든지 生에 대한 批判인 것은 一般이다. 이 點에 잇서 宗教나 科學이나 哲學은 同一한 目的을 갖고 엇다. 다 生活에 대한 批判이다.

大概 이리케 批判하여 아는 法은 둘이 잇는데 하나는 部分的으로 아는 方法이요. 다른 하나는 全體的으로 아는 方法이 그것이다. 局部的 認識法은 分析的이요, 間接的이고 全體的 認識法은 綜合的이요, 直接的인 것이다. 前者는 科學的 方法이요. 後者는 哲學的 方法이다. 이럼으로 哲學이 萬事物에 對한 批判 인以上 哲學은 分析的 哲學과 綜合的 哲學의 兩種으로 分見할 수도 엇다. 하나는 萬物과 萬事를 說明함에 局部를 重要視하고 다른 하나는 全部를

重要視한다. 이러타고 勿論 이 두 方法과 學이 互相 絶隔해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의 理性 作用은 分析的이요, 綜合的이다. 무흠이 獨立해 잇을 수 없다.

萬事物을 全體的으로 批判 認識할나는 慾求는 哲學 研究의 事項을 二分하게 되었다. 이는 以上の 二種 說明 方法에 依하여 決定된 것이다. 部分的으로 알나는 傾向은 物質에 偏重하게 되고 全部的으로 알나는 傾向은 精神에 偏重하게 되었다. 여기서 또한 物質主義的 哲學과 精神主義的 哲學의 分類가 生起한다. 그러나 여기도 以上の 兩種 認識法이 獨立 絶隔해 잇지 못하는 것도 갖치 唯物論이나 唯心論은 서로 껴나 잇을 수 없다. 互相 補助的 任務을 하고 있다. 生命이 物質과 精神이 껴나 잇을 수 업는 것과 같다. 單只 生命活動의 兩方流露이다.

우리가 여기서 記憶하여야 할 것은 哲學이란 것은 以上 說明과 갖치 生活 物態에 對한 意識的 批判인 以上 精神的 科學이 되지 안이 하면 안된다. 所謂 唯物論 까지라도 精神 活動의 產物이다. 이럼으로 모든 哲學, 즉 모든 生活批判은 그 性質에 잇서 唯心論이다. 즉 精神論이다. 우리가 事物을 感覺으로 알든지, 理性으로 알든지 그 아는 것과 그 안것은 一貫하여 經驗的이요, 精神的이다. 이 事實을 記憶함에서 모든 哲學 問題는 比較的 單純해 질 것이다.

四

플레토는 哲學者를 眞理의 愛好者라고 하였다. 즉 알기를 좋아하고 묻기를 조화하는 사람이라 하였다. 萬事物의 實存在와 意義를 愛知코저 한다. 이러케 하자면 事物의 眞과 僞, 正과 誤를 分別視하는 好奇的 能力이 必要하다. 이 分別視 할 줄 아는 것이 哲學의 骨子이다. 이럼으로 플레토는 말하되 家犬이 自己의 主人을 알고 소리를 치며 外來人과 分別하여 보는 行動을 하는 以上 그 犬은 實로 哲人的이라 하였다.

哲人은 探偵者와 갖치 事物의 「有하이야 [해야] 할 것」보다 只今「有한 것」을 知하기에 努力하는 것이다. 왜 이것은 이리코, 저것은 저런가? 하는 現實의 存在原因을 理解 說明하러 한다. 이럼으로 哲學 研究者는 存在의 아모런 現象에對하여서든지 그 既爲的 理由를 알나 探求한다. 例하면 何故 萬有가 只今의 貌樣으로 生起하였스며, 作用하고 「잇는 것」인가하는 理由를 說明하러 한다. 또한 그는 萬有 現狀의 作用法이나 因果 關係를 表面的혹은 個體的으로 敍述하는 것을 排斥하고 할 수 잇는데로 그것들을 全的合理하게 究 前後의 矛盾이 업시 徹底한 解說로 一貫하러 한다. 事物의 統一性을 알기

에 힘쓴다. 이 全的 態度에 잇서서 哲學은 다른 特殊的 科學들과 相異하다.

英國의 존·스튜어트·밀 [존 스튜어트 밀] 의 管見을 代用하면 一般 科學의 問題는 아모런 解析도업시 엇더한 假定的 原理上에 立하여 가지고 特殊的 自然 現狀에 對한 事實을 發見 整理하러 하고 그 다음에 이러케 便利的으로 發見해 주어 모든 것에依하여 우리의 모든 經驗의 現狀과 意義를 解說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나이것은 部分으로 全體를 알냐고 하는 誤謬이다. 하지만은 哲學은 一步를 進하여 그 一般 科學的 假定 原理의 實在며, 意味를 차차 說明하려는 同時에 一切 科學的 發見을 統一하고 全的 意味를 줄냐하는 것이다. 즉 全體를 앞으로써 個體를 알냐 하는 것이 哲學의 進行法이다. 아리스토텔의 말과 갓치 全體는 個體를 先行하는 것이다.

다시 우리는 되푸리 한다. 哲學은 一切 科學的 發見, 發明을 統一 通貫하는 根本的 原理를 窮探하러하는 것이다. 이래서 스펜서 가튼 哲人은 哲學의 定義를 하되 一切 科學의 統一學이라고 名命하게 된 것이다. 무엇이든지 個別的으로 보지 말고 全體的으로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이 哲學의 主張이다. 孔子 書 中の 大學에 말한 格物致知의 理想이 그것이다.

이래서 哲學者는 무엇보다 「綱領」의 人, 統觀의 人이 되어야 한다. 事物을 統觀함에는 各種 眞相의 正鍵을 차져야 할 것이다. 物의 部屬과 獨存性을 分明히 判立하여야 하갓다. 이 洞察은 吾人의 日常生活上 平凡한 모든 局面까지 하나도 漏失됨이 업시 通觀함의 밋치여야 할 것이다. 이에 日常生活은 哲學批判의 題材가 된다. 이런 故로 哲學에는 高尚한 理智統合力 及 批判力도 勿論 必要하지만은 生活할 줄도 아는 이라야 哲學作用에도 成功할 수 있다.

五

以上에 우리는 人生 生活의 經驗을 거긋 업시 全的으로 觀察하여 意味 있게 說明하러는데서 哲學家와 詩家가 同一한 立地 上에서 相逢한다 하는 것을 暗示하였다. 이 兩者가 다가티 人間 生活의 裏面에서 우리나라는 事物的 表現의 實在와 意義를了解 차라리 發表하기에 奮鬪하는 것이다. 둘이다 宇宙의 間에 不可思議的한 秘密을 發見, 發表하기에 努力한다.

그러면 이와 갓치 詩人이나 哲人의 使命은 거의 비슷하거늘 何故로 詩人은 比較的 世上 사람에게 보다 만흔 歡迎을 맞고 哲人은 보다 冷情을 맞게 될가? 그 理由는 大概하나라 할 것이다. 곳 各々の 發表의 方式 즉 言語가 다른 까닭이다. 詩人은 通俗 人의 말을 使用하나 哲人은 남이 드러 쉽게 알지 못할 넘우 抽象的 言辭를 쓴다. 함으로 이제부터라도 哲學이 人類 思想界에 付與한 供獻이 얼마나 豊富하였는지를 널리 알게 하러하면 解得키 어려

은 學的 術語만 使用치 말고 單純明快한 通俗的 文字로 譯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케 함이 哲學의 民衆化요. 人間化일 것이다. 이새에야 아모리 形式的 哲學을 一種 閑書貌樣으로 待接하든 多數 民心이엿슬지라도 哲學은 自己네의 生命 根이라고 써들 것이다. 웨 그러나 하면 哲學은 生活의 批判일뿐 안 이라 生命의 發表이기 새문이다. 自我를 다시 찾는 感이 업지 안아 잇슬 것이다.

이새까지 詩家は 通俗語를 썼기 까닭에 哲學家보다 代聽衆을 支配하여 왔 췌다. 이 聲望은 꼭 그 發表하는 手段方法이 哲學의 그것보다 大衆에게 훨씬 單純하고도 理解하기 容易한 理由이엿다. 하지만은 그 發表의 內容으로 말하면 거의 어느 程度까지는 確實히 哲學的이다. 詩人은 神의 神秘와 萬事의 深奧한 眞理에 向하여 忠實히 冥想하며 또한 人間이나 自然이나 人生 生活을 感賞, 感動하는 그대로 自己의 詩歌라는 媒介를 通하여 表現하고 讚美한다. 이 經驗的 爆發에 잇서서 그는 哲學者와 一致한다. 이 發表는 哲學의 그것과 갖치 全的이다. 이 全的은 民衆的이다. 이러케 詩人은 哲人과 갖치 自己가 居 하는 이 世上의 모든 事件의 部分보다 그 全景을 深觀하러 하며, 物象을 全的으로 遠視하러한다. 즉 個體가 全體로 轉嫁되는 것 融解하는 것이 詩의 作用이다. 主客이 一致된 作用이다.

키플링은 自己의 엿던 詩集 中에 以下과 갖치 詩人의 生活의 理想을 發表 하엿다.

다만 하날 主人이 우리를 稱讚이라도 하고 譴責이라도 할 것이요.

누구나 돈을 爲하여서 名譽를爲하여서 일을 하라.

그저 일하는 그 潺味로 일할 것이며 自己가 맞흔 星이나 研究할 것이다.

그리케 하는 中에 그가 보는 그대로 物의 存在 그대로 感賞할 수 잇다.

이 主客이 一致함으로써 實在 그대로를 안다 하는 것은 直覺이다. 一種物의 存在를 그대로 알냐 하면 外面에 分立해서는 認識할 수 업고 그 속에 드러가 그 物과 同化하여야 한다. 이것이 참말 아는 方法이다. 이것이 哲學的 直覺의 方法이다. 外面에서 보는 法은 科學的方法이다. 그 結果는 皮相的 智識이다. 참 智識은 生活 內面에서 살면서 엿은 智識이다. 이것이 詩的 智識이요. 哲學的 智識이다.

이제 詩學 中에서 哲學과 共通되는 點이 「事物의 그대로」를 感視하는 法을 奪去한다 하면 맞치 香氣와 美를 除去한 花와 恰似할 것이다. 美는 大概 全的이요. 具體的形式이다. 如斯한 系統包括的 理想이 詩的 又是 哲學的 洞察의 內容을 形成한다.

그러나 詩歌는 만흔 思想 流路의 一枝路이다. 안이 한 갈래로만 흐르고 잇

는 獨流이다. 그 流路가 全的이요. 具體的이다만은 그것은 部分的 全的이요. 全的 안이다 함으로 언제든지 詩情에는 絶隔한 맛, 徑打한 맛이 있다. 動的作用性이 別無하고 被動的, 保守的, 性이 濃厚하다. 이 境遇의 生命은 素朴한 內在的 存在이다. 外界로 物質이란 形式으로 터져 나아오려면 哲學의 自動的 衝動에게 洗禮를 맞아야 하는 것이다. 이 哲學的 洗禮를 맞은 다음에야 그 生命은 外的建設에 現著하게 된다. 이것은 每 時代에 잇서서 個人的, 社會, 政治的, 生活標準이 當時의 哲學的 討議의 影響에 말미암아 高下度로 變遷決定 되는 것을 보아서 明瞭한 事實이다. 哲學은 生活의 世評이란 뜻이 여기에 있다.

흔이 었더한 一個 思想的 學派의 敎理는 來終에 民衆化해야 그들의 生活의 公理가 되기는 하였다. 이럼으로 十八世紀의 哲學家들은 었질 수 업시 佛國革命의 流血의 事實과 關係를 隔絶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루소의 로만틱한 自然主義라든지 몰테어의 人權擁護論에 對한 熱辯은 佛國革命의 爆發과 密接한 因緣을 짓고 잇서든 것이다. 個人의 人權 自由를 蔑視하든 當時의 政治, 宗教社會를 咀呪하고 새롭은 政治, 새롭은 宗教, 信仰自由를 鼓吹케한 基督新敎者의 忿發의 重要한 原因도 그 根은 깊히 當時의 새로운 宗教哲學에 基하였다. 더구나 이제에 獨逸에 잇서서는 哲學的 啓發이 特히 政治 生活에 도만흔 刺戟을 與하였고, 그 國의 文學을 創造했다 할 수 있다. 哲人 칸트, 퓌취 [피히테], 쉴링, 헤겔 등은 文人 혁더, 쇠테, 레싱 등과 깊은 精神의 親戚을 結하였다. 英國에서도 當時의 有名한 政治家 글래드손, 몰리, 켈포는 그새에 奔走한 國事に 對한 重務와 公事に 複雜한 中에서도 恒常 哲學 問題에 嚴肅한 思考를加하였다고 한다. 實로 在來의 英國 哲人들은 거의 다 政治家이엇든 것이니 셰콘, 락, 함쓰, 흠 등은 그 中의 現著한 例다.

六

以上の 모든 理由 中에 哲學은 生活에 對한 批判이요. 그 批判 自體부터 生命 活動에 根據한 것이며, 그러니까 哲學的 思潮에 依하여 人類 歷史의 過程이 決定되엇고, 決定되어 있다 하는 理由로써 哲學은 浮塵과 가티 乾燥無味한 工夫는 안이라고 우리는 斷言한다. 더구나 哲學 研究는 관역도 업서 쏘는 彈丸도 업시 그저 함부러 發射하는 射擊도 안이다. 正말 哲學의 問題들은 以上과 갓치 今日 人生의 實在的 問題의 手續이다. 이럼으로 哲學이目的하는 것은 每日의 問題요. 永久의 問題이다. 사람이 살아 잇는 동안의 生活 批判이 哲學이다.

그러면 이러케 人生 問題와 씨름 헛고 쏘는 하려하는 哲人은 었더한 性品을 가져야할가? 우리는 이 質問을 簡單히 調查하여 보자. 眞正한 哲學者는 勇

敢한 情神의 所有者이여야 하겠다. 思考의 危險性을 모험할 氣力이 있어서야 하겠다. 그래서 百折不屈히 發見하며 窮求한 眞理를 大膽히 온갖 障礙를 다 不顧하고 發表하게 되는 것이다. 同時에 그는 그 時代의 先覺者와 갖치 眞인 줄을 自覺한 것이면 반드시 公開해야 새 思想에 據한 새 生活의 炬火가 되지안이 하면 안 된다. 이제에 비록 世上사람이 蜂起해야 그에게 沈默하라고 殺氣가 있게 大聲으로 웨친다 하드래도 그는 凡然히 目的있는 一片丹心으로 그새 眞理를 爲해야 地位, 名譽, 親友, 敎會, 國家社會까지라도 境遇만 되면 즐겁게 犧牲을 할 것이며, 眞理에서 生해야 眞理에서 살다가 眞理에로 도라 감이 그의 唯一한 人生觀이 되어 질 것이다. 이것은 過去에 있어서서 大哲人들은 大概 實行한 生活法이다. 古代는 고만두고라도 現代에 있어서서 코페니 커스 [코페르니쿠스] 팔리리온 [갈릴레오] 스피노자 칸트, 헤겔 등은 그 中 現著한 例다.

남이 드러주지 안이하면 혼자라도 조타. 닛취 [니체] 스텐더 [스펜스] 를 보라 그 얼마나 獨存的 自決主義의 哲學者인가를. 更히 哲人의 業務는 恒常 人間의 生活의 價値를 物質的, 享樂的, 機械的, 傾向에로 低下식히는 모든 趣勢와 싸우는데 있게 된다. 웨 그러나 하면 哲學者는 動物的 生存競爭의 弱肉 強食의 暴力의 □에서 泰然히 人生活의 高尚한 理想을 指示하려 하며 自己 스스로가 거기로 引導하려 하는 까닭이다. 여기에 잇서 그는 單 一個의 學者 썬이 안이라 共衆의 先知者라 할 것이다. 多衆人이 普通 願하는 物的享樂만을 最善으로알지 안이하고 다만 人의 共通的發達의 自由를 生活의 最善한 價値로 알고奮鬪한다. 그이는 이러한 使命을 가졌기 새문에 物的快味에 억매인 多數人에게 거의 先天的으로 非難을 받게 된다. 過去 歷史上에서 만흔 哲人은 단지 新思想을 抱負했다는 理由로 酷刑을 受한 것을 우리는 잘 안는 바가 안인가?

七

우리는 이에 本文을 終하되 以上の 모든 理由로 해서 哲學의 問題는 엇던 特殊階級의 專有物이 안인 것과 더구나 小數人들에게만 委托하여 둘 것이 안인 것을 斷言한다. 우리는 以上에서 哲學은 모든 科學의 根本學 즉 主人이라하고 一般 特殊의 科學의 發見 事實을 貫通하는 全的 意義를 發見-차라리 贈與-하려는 것은 哲學의 目的이라 하엿다. 이럼으로 哲學은 「뜻의 科學」이다. 뜻은 全的이다. 이 全的 뜻에 依하여 生活을 하자! 이것이 哲學의 使命이다. 하기 새문에 哲學의 問題는 意味 있는 생활을 爲主하는 人의 相續物이요. 그러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이를 輕視하는 이는 自己의 相續權을 輕視함과 갖겠다. 이래서 自古 以來로 모든 思考者들이 人生과 自然에 對한 問

題를 記錄한 을 한번이라도 參考하는 것은 무슨 特權이 아니라 도리혀 人人의 義務라 할 것이다. 우리가 世界史上에 表現된 重要的 政治的, 社會的, 事實과 運動을 알아 둬야 絕對 必要하다 하면, 爲先 그 事實 運動을 演出케 한 根本的 原因이 되는 思想의 運動을 探知함이 必然的 順序일 것이다. 所謂 모든 社會 建設과 運動은 其實 思想의 外的 具體化에서 不過한 것이다.

깊히 過去의 人類社會의 徑路를 回顧하면 옛던 哲學思想의 盛衰가 옛던 國家社會의 盛衰와 並行한 것을 詳細히 알 수 있다. 이는 單只 思想이 萬事 變動의 가장 重大한 原因이 되는 故이다. 그러나 唯物論者는 여기서 말하리라. 「思想은 物質의 上部建設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답이 먼저 낫느냐 알이 먼저 낫느냐 하는 迷題에 드러가고져 안이 한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답이 먼저 낫다든지 알이 먼저 낫다든지 如何튼 이리케 是非 하는것 부터도 思考의 作用의 偉力때문이요. 그것을 預想하고 發疑라도 하는 것 인즉 이 點에 잇서서 唯物論者는 自己의 認識錯覺은 告白하여야 할 것이다.

일즉 샤카르 [데카르트] 는 말하였다. 「世上萬事を 다 疑心 할 수는 잇스나 내의 思考作用은 疑心할 수 업다. 왜 그러냐 하면 그 疑心하는것 부터가 나의 思考作用의 實在를 認證하는 까닭이다」

이럼으로써 萬事의 出發點은 (나)이다. (나)는 思想作用을 하는 動物이다. 이것은 絕對的 立地이다.

(끝)